

학교 밖 청소년 자기계발 프로그램 운영모형 개발*

조규필 김수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재능 및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자기계발 프로그램 운영모형을 개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관련문헌과 국내외 프로그램 운영사례를 분석하였고, 전국 17개 시도의 학교 밖 청소년 294명, 실무자 298명을 대상으로 자기계발 프로그램 요구도를 조사하였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및 실무자 각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및 FGI를 실시하고, 전문가 자문 후 운영모형(안)을 개발하였다. 추가로 현장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개소를 선정하여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논리모델에 근거한 현장 중심의 자기계발 프로그램 운영모형을 제시하였다.

* 주요어: 학교 밖 청소년, 자기계발, 프로그램 운영모형, 모형개발

* 본 논문은 2015년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학교 밖 청소년 자기계발 프로그램 운영모형 개발 연구' 내용의 일부를 발췌·수정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4805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9 센텀사이언스파크 9층, Tel: 051-662-3183, E-mail: sujinkim1224@hanmail.net

서론

지난 해 우리나라에서 학교를 떠난 청소년은 한해 약 6만명 수준으로 전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의 0.8%를 차지한다. 반가운 사실은 최근 3년 사이 학업중단율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국내 거주 학교 밖 청소년 수는 무려 35만 여명에 달한다. 이들의 학교중단 이후 생활형태를 보면, 배회하거나(21.0%) 소일하거나(13.2%) 은둔생활(12.7%)을 하는 니트형(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NEET)이 46.9%, 검정고시 준비나 대안교육시설 등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습형이 41.5%, 지속적으로 아르바이트만 하는 취업/알바형이 11.7%로 조사된 바 있다(윤철경, 류방란, 김선아, 2010). 즉 학교 밖 청소년은 공교육 제도권 밖에서 일부가 학업이나 근로활동을 하기도 하지만, 다수는 뚜렷한 목표의식 없이 무위도식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더욱이 학업중단 후 55.5%가 가출을 경험하거나(유서구, 김응수, 김윤나, 서보람, 강현우, 2012) 비행에 연루되어 재학생보다 7.2배 높은 범죄율(조규필, 2014)을 보이는 등 일부 학교 밖 청소년은 가정과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학업중단 초기에 주변에서 누군가의 관심과 도움이 있었다면 좀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이 비행에 빠지지 않고 진로준비에 대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지도 모른다. 실제로 윤철경, 유성렬, 김신영과 임지연(2013)의 연구에서 학교를 그만 둘 당시 가장 필요했던 도움은 진로상담(48.3%)과 학업중단 이후 생활정보제공(36.7%)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교를 떠나는 대다수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진로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사회에 발을 내딛게 된다. 이후 선택하는 진로는 주로 검정고시 준비나 대안학교 진학 등 학력을 취득하기 위해 학업을 지속하는 것이다. 또는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직업훈련을 통해 직업을 준비하기도 한다. 나머지는 특별히 하는 일 없이 무위도식하는 니트형으로 지내게 된다. 지금까지 현장 전문기관들의 전통적인 접근도 이와 마찬가지로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이나 취업의 두 가지 경로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주를 이루었다. 2014년까지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던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 프로그램 역시 사회진입을 지원하는 ‘두드림’ 프로그램과 학업복귀를 지원하는 ‘해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지금 당장 공부나 취업에는 관심이 없지만 뭔가 하고 싶은 일을 배우거나 의미 있는 경험을 하고 싶어 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직업과 학업이라는 두 가지 지원 외에 또 다른 개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러한 요구들 가운데는 그동안 별다른 지원이 부족했던 니트족에 대한 고민도 함께 포함된다. 학교 밖 청소년 가운데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니트족은 그대로 방치할 경우 게임중독, 은둔, 비행, 청년실업 등 사회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고,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을 여러 연구에서 경고하고 있다(김광석, 2015; 김미숙, 2009).

그러므로 지금까지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개입이 사회진입 및 학업복귀의 2가지 진로

트랙을 중심으로 개발·운영되어 왔다면 앞으로는 자기계발 프로그램이 제 3의 트랙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서 자기계발의 의미는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스스로 자신의 재능이나 잠재력을 발견하여 발전시키는 자기능력 계발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서비스를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대다수는 십대로서 발달단계상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향해 도전하고 성취하려는 노력을 통해 자신감과 삶의 의욕을 증진함으로써 장차 사회인으로서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자기계발 프로그램이 갖는 의미는 크다고 하겠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기계발 프로그램은 주로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대안학교를 제외하고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물론 일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문화·예술이나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주로 단기성 체험 프로그램에 그치고 있어 자기계발 목표를 성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더욱이 정보의 부족, 경제적인 부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적합한 프로그램의 부재 등 여러 현실적인 제약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선뜻 자기계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윤철경 등(2010)의 연구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가장 필요한 도움으로 경제적 도움(40.0%), 내 앞길을 준비하는데 있어서의 도움(17.4%)으로 나타나 구체적·현실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자기발전을 돕기 위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기계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한 내용이나 절차가 사전에 체계적으로 계획되고 치밀하게 조직된 활동이나 서비스를 말하는데(김창대, 2002; 변창진, 1994), 자기계발 프로그램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의 관심분야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 영역에 한정된 프로그램 개발로서는 현장 활용도가 낮아질 수 있다. 또한 현장에서는 이미 학업복귀나 직업준비를 위한 여러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체적으로 자기계발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어 추가로 자기계발 프로그램이 보급될 경우 이를 새롭게 적용하는 데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자기계발 프로그램 운영모형을 개발하여 현장의 효용성을 높이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의 잠재된 끼와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기존의 직업 및 학업 진로 외에 제 3의 트랙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의 자기계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특정영역의 프로그램 개발이 아닌 다양한 자기계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모형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기존에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던 자기계발 관련 프로그램들과 별개의 다른 운영모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기반의 표준화된 운영모형을 구성하되 지역 센터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필요한 부분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형을 제안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 운영모형 개발과정은 대표적인 교수설계 모형인 ADDIE모형을 응용하여 진행되었다. 일반적으로 ADDIE모형은 교수-학습의 과정에서 학습 성과를 달성하고자 최적의 수업과정을 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본 연구의 자기계발 프로그램 역시 학교 밖 청소년이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적절한 개입과정을 전개해 나간다는 점에서 유사한 면이 있어 이를 개발과정에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 자기계발 관련 프로그램 수집, 학교 밖 청소년과 실무자 대상 요구도 조사 및 심층면접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자기계발 영역, 프로그램의 목표, 세부 준비 및 실행모형을 구성한 후 시범운영을 거쳐 프로그램 운영과정을 표준화함으로써 자기계발 프로그램 운영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향후 자기계발 프로그램 운영모형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보급되어 지역 특성에 맞게 활발히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론적 배경

1.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

2014년 제정되어 2015년 시행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이란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을 일컫는다.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는 공식적으로 정확하게 파악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청소년에 해당하는 인구와 학교에 소속된 학생 수를 근거로 추정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2015년도에 실시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최인재, 이경상, 김정숙, 장근영, 2015) 결과에 따르면, 9~18세 주민등록인구수+등록 외국인 수를 파악한 후, 여기서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에 해당되지 않는 대학교 학생 수, 초·중·고 및 동일 과정 학교 학생수, 외국인학교 및 국제학교 초·중·고 과정 학생수를 빼는 방법으로 학교 밖 청소년 수를 파악하였다. 즉 다음의 표 1을 보면 $T=(A+B)-(C+D+E)$ 와 같은 계산식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규모 추정 결과, 2014년 12월 31일 기준 학교 밖 청소년은 377,15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국내에 거주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N)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출국 청소년의 수(F)를 빼는 방법으로 파악하여 총 354,938명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1> 2014년(12.31 기준) 학교 밖 청소년(9~18세) 규모추정 결과 (단위: 명)

구분		인구수	비고
주민등록인구수	A	5,705,882	
등록외국인수	B	23,386	(추정)
대학교학생수	C	7,416	
초중고 및 동일과정학교 학생수	D	5,333,858	(추정)
외국인학교 및 국제학교 초중고과정 학생수	E	10,837	(추정)
학교 밖 청소년 수	$T = (A+B)-(C+D+E)$	377,157	(추정)
순출국 청소년수	F	22,219	(추정)
국내거주 학교 밖 청소년 수	$N = T - F$	354,938	(추정)

* 출처 : 최인재·이경상·김정숙·장근영(2015).

2. 학교 밖 청소년의 자기계발 단계

해마다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들이 많아지면서 사회적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를 나오면서 방종, 자각, 변화 시도, 재정립, 도약·안주의 5단계를 거치면서 심리사회적인 적응을 하기도 한다(김영희, 최보영, 2015). 또한 의미 상실, 탈학교, 사회적 실험과 경험, 새로운 의미부여의 4단계를 거치기도 하고, 특정 단계에 머물러 있거나 중퇴와 복학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며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박현선, 2003).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학교를 나온 청소년들은 혼란스러워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되고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무엇인가를 해보려는 갈망이 일어나며 중국에는 자신의 재능이나 잠재력을 조금씩 발견해가는 과정을 겪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계를 혼란기→모색기→도약기의 3단계로 정립하였으며 각 단계별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프로그램이 상이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복학이나 검정고시 등을 지원하는 학업복귀 프로그램과 진로 및 직업을 찾아가는 사회진입 프로그램이 주로 지원되어 왔으나, 학교 밖 청소년의 흥미나 관심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자기계발 관련 프로그램이 등장하게 되었다. 기존의 '자기계발'이라는 개념은 주로 기업, 조직 등에서 구성원들의 역량강화 측면에서 제시되어 왔으며,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초점을 두고 자신의 능력과 역량을 개발·발전시키는 행위이며(신수경, 2013), 주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찾아 스스로 계발하고 향상시켜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는 제반과정(이정원, 2015)으로 정의되었다. 청소년의 자기계발은 대표적으로 국가제도인 '수련활동인증제'에서의 자기계발 영역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자기계발이

란 최익용(2010)의 주장을 수용하여 ‘자기능력계발’로서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발견하고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자발적인 활동으로서 개개인의 지식, 기능, 바람직한 태도 등을 배양하고 축적하는 과정에 필요한 일련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임영식, 문성호, 정경은, 2011).

한편 자기계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림 1과 같이 ‘자기계발 사이클’에 의해 태도의 형성, 지식 습득, 반복적인 연습, 기술(습관화)의 4가지 과정이 순환되어야 한다(최염순, 2005).



* 출처. 최염순(2005), p. 30 재구성

[그림 1] 자기계발 사이클

선행연구를 종합해볼 때 ‘자기계발’은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스스로 자신의 재능이나 잠재력을 발견하여 발전시키는 자기능력 계발과정이며, ‘자기계발 프로그램’은 주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찾기 위해 스스로를 계발하고 향상시키며,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발견하기 위해 개인의 지식, 기능, 바람직한 태도 등을 배양하고 습관화하는 과정에 필요한 일련의 프로그램으로 정의할 수 있다.

3. 국내외 자기계발 프로그램 운영현황

국내외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기계발 관련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국내사례를 보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대안학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프로그램 운영현황

학교 밖 청소년 자기계발 프로그램 운영모형 개발

을 분석한 결과, 신체단련 프로그램이 가장 많았으며, 총 운영시간은 4~72시간으로 평균 22시간 내외로 운영되고 있었다. 소요예산은 30만원~800원으로 평균 24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참석인원은 5~60명으로 평균 20명이 참여하였다.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 이에 해당된다. 이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을 모집하여 수요에 따라 전문기관을 공모·선발하여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가장 많이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음악분야인데 프로그램 시간은 보통 30~114시간 사이로 평균 68.4시간이 소요되었다. 예산은 프로그램당 1,300만원이며, 참석인원은 5~63명 사이로 폭넓은 편이었으며 평균 21명이 참여하였다. 국내 프로그램을 종합해보면, 자체운영 프로그램의 경우 참여 청소년과 라포가 잘 형성되어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이 된 반면, 예산상의 제약으로 교육분야나 프로그램 기간을 선택하는데 제약이 많았다. 위탁운영 프로그램의 경우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장기간 운영되었으나 청소년 관리에 어려움이 있거나 외부강사와 내부직원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 요컨대, 국내 프로그램은 단기간, 단회성 체형성격의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어 지식, 기능, 태도 등을 배양하고 습관화하여 자기능력을 계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표 2> 자기계발 프로그램 운영현황

구분	지역	프로그램명	연령	인원	기간	횟수	소요 시간	총 시간	방법	강사	예산 (천원)
국내 위탁 운영	홍성	우쿨렐레 교실	9-24	10	3개월	주1회	2	24	강습	외부	600
	광주	목공작업장	9-24	10	3개월	주1회	3	30	강습	외부	6,500
	계룡	healing 스키캠프	9-24	40	2일	-	-	48	강습	외부	6,000
	제주	올레야! 가자!	15-24	10	12개월	월1회	6	72	탐방	내부	2,000
	용인	제2의 탄생 소리로 날다	16-20	12	9개월	주1회	2	60	강습	전문	13,000
국내	도봉	Do Dream! 난타!	12-20	63	7개월	주1회	2~3	80	강습	전문	13,000
	양산	나의 뮤직스토리	14-21	10	9개월	주1회	2	60	활동	전문	13,000
	천안	코끼리와 1/18	15-19	10	12개월	주1회	3	114	강습	전문	13,000
국외	영국	Bridge Academy	11-18	-	상시	주1회	-	-	강습	전문	-
	캐나다	힙합댄스	11-16	-	3개월	주1회	-	-	강습	전문	-
	미국	Holiday in Museum	10대	-	4일	1회	30	30	탐방	대안 교사	-
		NYSP	10~18	86	5주	매일	-	-	강습	전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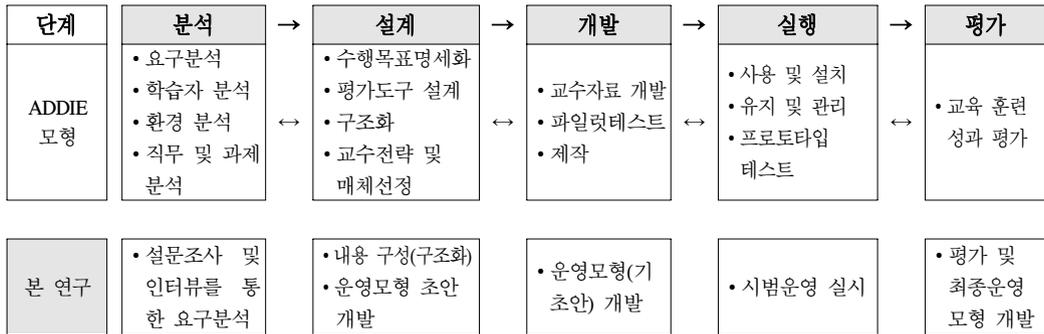
국외 사례를 보면, 영국의 경우 금융기업인 USB가 지원하여 대표적 빈민지역인 헤크니(Hackney) 거주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학, 음악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교과적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브릿지 아카데미(Bridge Academy)를 진행하고 있다. 브릿지 아카데미는 11~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악, 드라마, 연극, 디자인, 역사, 경제 등의 자율교과(Flexible Friday Curriculum)를 매주 금요일 운영한다(임영식, 정경은, 진은설, 2014). 캐나다는 오타와(Ottawa) 지역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고 적극적인 신체활동을 하는 경향이 적거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11~16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비영리기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주 1회, 3개월 간 힙합댄스를 지도한다. 이 프로그램은 구조화된 개입 매뉴얼에 따라 실시되는데, 참여 청소년은 힙합댄스 기술 습득과 더불어 친구, 강사, 센터직원과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며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다(Beaulac, 2008). 미국에서는 10대 위기청소년 중 과학적 탐구에 동기와 흥미가 있는 청소년을 선별하여 방학 중에 4일 간 박물관에서 과학교과 대안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교육협회, 교육기관, 자연역사박물관의 협조로 이루어지는데, 교과수행 향상을 목표로 30시간 이상 참여를 하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Tam, Kai Yung (Brian), Rousseau, Marilyn K. Nassivera, John W. Vreeland, Peter, 2001). 또한 매년 여름에는 전미대학체육협회(National Collegiate Athletic Association, NCAA)가 후원하여 경제적으로 열악한 75,000명의 청소년들에게 스포츠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강의 선택, 승인, 세부사항 등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그램 방향을 전미대학체육협회가 주관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스포츠 기술, 건강 지식을 습득하고 체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150개 대학에서 진행되며 전미대학체육협회의 주기적 방문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John Eddie Maxwell, 1980). 국외 운영 프로그램을 살펴본 결과, 미국, 유럽 등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이나 취약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었으며, 기업 및 지역사회 공동체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협력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국내에서도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질적으로 우수한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제공하여 그들의 도약을 도울 필요가 있다. 또한 캐나다, 미국 등에서 구체적인 운영 매뉴얼에 따라 실무자의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표준화된 운영모형 개발을 통해 현장에 상세한 운영 매뉴얼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상의 국내외 프로그램 운영 사례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에서 음악, 스포츠, 댄스 등 예체능 계열의 프로그램을 주로 진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기계발 프로그램은 정적인 학습보다는 체험과 실습 중심의 다양한 예체능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소년이 자기능력을 충분히 계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의 단회성 운영보다는 충분한 숙련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프로그램 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셋째, 실무자

가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자기계발 프로그램 운영모형에 프로그램의 목표와 절차, 대상인원, 기간, 예산 등의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수월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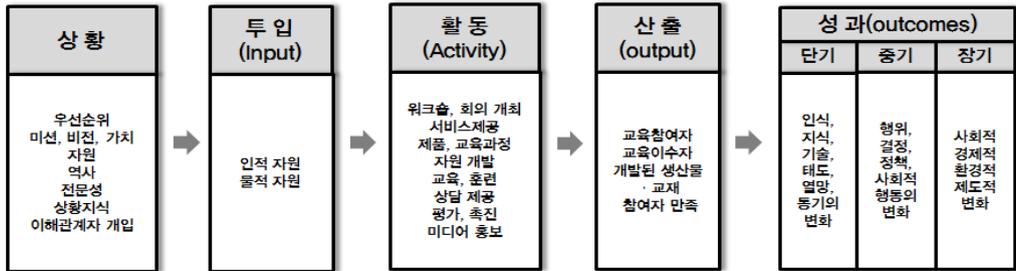
4. 자기계발 프로그램 운영모형 개발 이론

본 연구의 프로그램 운영모형 개발과정은 ADDIE 교수설계모형을 응용하여 진행되었다. 또한 자기계발 프로그램 운영모형은 논리모델(logic model)을 적용하였다. 전반적인 개발과정에 적용된 ADDIE 교수설계모형은 분석(Analysis), 설계(Design), 개발(Development), 실행(Implementation), 평가(Evaluation)의 단계를 따르며, 이 단계들은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류은수, 2014). ADDIE모형에 따른 본 연구의 개발과정은 그림 2와 같다. 분석 단계에서는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한 요구분석을 실시하였고, 설계단계에서 운영모형의 구조화를 거쳐 개발단계에서 운영모형의 기초 안을 완성하였다. 실행단계에서 시범운영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평가단계에서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한 최종 운영모형을 개발하였다.



[그림 2] ADDIE 모형에 근거한 운영모형 개발 과정

논리모델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주요 요소들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운영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즉 프로그램의 의도가 활동을 통해 성과로 이어지는 논리적인 연결 관계를 도식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프로그램의 과정과 성과를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어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활용되고 있다(이봉주, 김예성, 임정임, 2009). 이 모델은 상황, 투입, 활동, 산출, 성과의 5개의 요소로 구성된다(김영중, 권순애, 2003; 이석민, 2011). 논리모델에 따른 본 운영모형에는 프로그램 전·후 과정에서의 기획, 준비, 진행, 모니터링, 결과 분석, 관리 등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모든 제반활동 및 절차가 제시되었다.



* 주. 이석민(2011), 황순길 등(2013) 참고

[그림 3] 논리모델

연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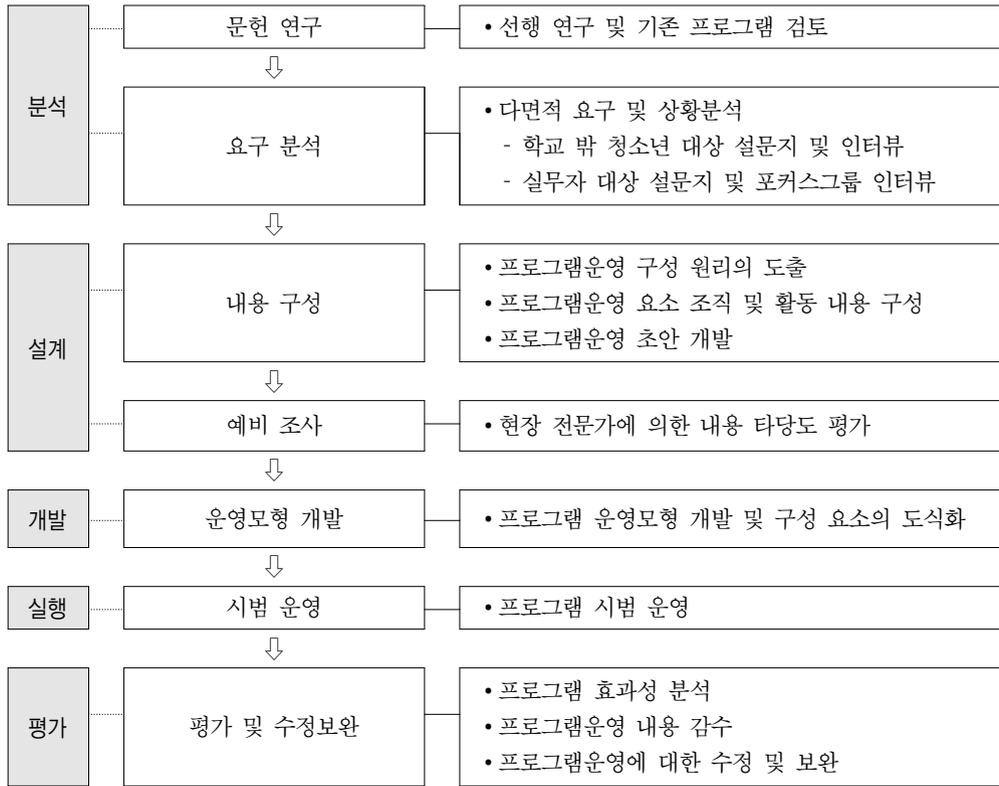
1. 프로그램 운영모형 개발 절차

본 연구에서 프로그램 운영모형의 개발절차는 전술한 바와 같이 ADDIE의 교수설계모형의 순서에 따라 진행되었다. 분석(Analysis)단계에서 자기개발 관련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자기개발 프로그램 국내외 운영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과 실무자를 대상으로 자기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 선호도, 운영방법 등에 대해 설문조사, 심층면접, 초점집단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설계(Design)단계에서는 프로그램의 준비단계, 실행단계, 사후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별 세부내용을 구조화하였으며, 만족도 및 효과성 등 평가도구를 선정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적합한 방법을 설계 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모형 초안을 도출하였다. 개발(Development)단계에서는 운영기간, 운영주체의 요소를 중심으로 ①단기센터형, ②장기센터형, ③단기위탁형, ④장기위탁형의 4종 모형을 개발하였다. 실행(Implementation)단계에서는 2개 지역센터에 시범운영을 요청하여 5주 간 프로토타입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마지막 평가(Evaluation)의 단계에서는 운영모형에 따라 시범운영 실시 2개 집단에 대해 효과성 검증을 실시하고 추가적인 수정 및 보완을 거쳐 최종적인 운영모형을 개발하였다.

2. 자료수집 및 분석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다각도의 자료수집과 분석과정을 진행하였다. 관련 국내외 문헌 자료 및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수집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내용분석을 수행하였다. 전국 16개 시도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166개소를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 294명과 센터의 실무자 298명을 대상으로 자기개발 프로그램 구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빈도

학교 밖 청소년 자기계발 프로그램 운영모형 개발



[그림 4] 학교 밖 청소년 자기계발 프로그램 운영모형 개발절차

분석, *t*-test, 교차분석 등의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10명 대상의 개별심층 면접, 현장 실무자 10명 대상의 초점집단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면접내용을 녹취 후 질적 분석을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모형의 초안을 개발하여 전문가 자문을 통해 타당도를 평가하였다. 또한 현장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2개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선정하여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무업형, 학업형, 직업형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를 하였다. 양적평가는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의 사전/사후 변화를 비모수 검증인 윌콕슨 부호 순위 검증(Wilcoxon Matched-Paris Singles-Rank Test)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는 임영식 등(2011)이 개발한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 문항 중 본 연구에 부합하지 않은 2개 문항을 제거하여 프로그램 내용, 시설 및 장비, 음식, 지도자 등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된 16문항 5점 Likert 척도로 평가하였다. 질적 평가는 프로그램 점검일지, 현장방문 관찰, 사후 실무자 평가회의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실시하였다.

<표 3>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자료 수집 방법	자료 수집 시기	자료수집 대상	자료수집 내용	분석 방법
문헌 분석	2015.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 청소년 자기계발 관련 국내외 문헌 자료 •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프로그램, 전문기관 운영 프로그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 및 실태 • 자기계발, 자기계발 프로그램의 개념 • 국내외 운영 프로그램 • 프로그램 개발 이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 분석
설문 조사	2015. 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 청소년 29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 남 144, 여 150 - 연령 : 18.3세 - 학업중단기간 : 19.7개월 • 실무자 298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 남 60, 여 238 - 연령 : 34.7세 - 실무경력 : 37.7개월 ※ 참여기관 : 16개 시도의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166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지역, 성별 등) • 참여 또는 운영 희망 자기계발 프로그램 • 참여 또는 운영 경험 자기계발 프로그램 • 자기계발 실천 또는 장애요소 • 프로그램 참여 결정요인 • 희망 기간, 횟수, 시간 • 기타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계발 프로그램 요구 조사를 위한 자체 설문 문항 개발 • 빈도분석, <i>t</i>-test, 교차분석 등(SPSS 18.0 사용)
심층 면접 및 FGI	2015. 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심층면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학교 밖 청소년 10명 - 성별 : 남 5, 여 5 - 연령 : 16~20세(M: 18.5) • 초점집단면접(FG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센터 실무자 10명 - 성별 : 남 4, 여 6 - 연령 : 32~51세(M: 3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계발의 의미, 경험 등에 대한 의견 • 자기계발 프로그램 참여 또는 운영에 대한 의견 • 적당한 기간, 횟수, 시간 • 기타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내용 녹취 및 축어록 코딩 분석
전문가 자문	2015.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전문가 4명 • 교수진 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운영절차(준비, 실행, 사후단계) • 운영모형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자에 의한 진행, 자문 내용 질적 분석
시범 운영	2015. 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이용 청소년 12명 (학업형 9명, 직업형 2명, 무업형 1명) •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이용 청소년 16명 (학업형 5명, 직업형 5명, 무업형 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조사 자료 • 참여청소년별 사정기록지 • 매회기별 프로그램 점검일지 • 시범운영 현장점검 기록 •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 최종평가회의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일집단 사전-사후 설계 (월복순 부호 순위 검증 분석) :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척도 사용 •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 • 질적분석 : 점검일지, 관찰, 평가회

연구 결과

1. 프로그램 운영모형의 요구도출 및 반영

운영모형을 개발하고자 학교 밖 청소년과 실무자, 전문가 등 프로그램 운영 관련 이해관계자의 요구들을 수렴하였으며, 추출된 요구들은 운영모형의 방향, 자기계발 분야, 운영방법 등을 구성하는데 반영하였다. 조사방법별 추출된 요구와 반영결과는 다음의 표 4에서 표 10에 제시하였다. 반영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계발 분야는 문화·예술, 신체단련, 봉사활동, 과학정보, 환경보존활동으로 범주화되었다. 둘째, 운영과정은 프로그램 기획, 수요조사, 대상자 모집 및 사정, 프로그램 소개 등이 이루어지는 준비단계, 자기계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실행단계, 프로그램 종료 후 동아리 운영, 인턴십 연결 등의 사후단계로 진행된다. 셋째, 프로그램 대상은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별 혼란기, 모색기, 도약기로 구분하여 혼란기는 자기계발 프로그램 참여 이전 사회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단회성 체험 프로그램 참여가 우선시되고, 모색기는 단기형, 도약기는 장기형 자기계발 프로그램 대상으로 적합하다. 넷째, 운영형태는 운영기간에 따라 단기형, 장기형으로 나뉘고, 운영주체에 따라 지원센터 중심의 센터형, 위탁기관 중심의 위탁형으로 구분하여, 이를 조합하면 단기센터형, 단기위탁형, 장기센터형, 장기위탁형의 4가지 모형으로 구성된다. 다섯째, 운영관리 측면에서는 강사면담, 멘토링 지원, 모니터링 및 출결관리, 청소년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 등이 필요하다. 여섯째, 프로그램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참가비 무료, 이론보다 체험실습 중심의 흥미로운 진행방법, 또래간의 친밀한 멤버십 형성 등이 필요하다. 일곱째, 프로그램 수료시 관련분야의 자격증 취득이나 수료증 수여, 표창 등의 적절한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여덟째, 단기형 운영시간은 매주 1회, 2시간씩, 15회가 적당하며, 문헌조사 결과 고려시 장기형은 60시간 이상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학교 밖 청소년 및 실무자 설문조사 결과

자기계발 프로그램 관련 주요 설문조사의 빈도분석 결과는 학교 밖 청소년과 실무자의 응답을 비교하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첫째, 참여를 희망하는 자기계발 분야는 청소년 응답결과에서 문화·예술, 신체단련, 봉사활동, 과학정보, 환경보존 영역에서 고르게 나타났으나, 실무자가 인식하는 분야는 봉사활동, 환경보존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둘째,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통해 얻고 싶은 점은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자격증 취득, 기술습득, 유익한 정보, 인턴이나 실습 경험, 현장체험, 전문가 만남의 기회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실무자도 기술습득을 제외하고 대부분 일치했다. 셋째, 프로그램 구조면에서는 청소년과 실무

자 모두 프로그램 기간은 2~3개월, 프로그램 횟수는 6~10회, 일일 프로그램 시간은 2~3시간 이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표 4> 자기계발 프로그램 관련 주요 설문조사 빈도분석결과(학교 밖 청소년 vs. 실무자)

참여희망 자기계발 영역	학교 밖 청소년(n=279)	실무자(n=253)
	빈도 (%)	빈도 (%)
① 문화·예술 영역		
보컬훈련	87 (32.3)	84 (33.2)
악기배우기	92 (34.2)	133 (52.6)
댄스, 무용	55 (20.4)	77 (30.4)
그림 그리기	47 (17.5)	14 (5.5)
사진 촬영	50 (18.6)	42 (16.6)
영상 촬영	33 (12.3)	17 (6.7)
영상, 음악 편집	50 (18.6)	31 (12.3)
연기	45 (16.7)	20 (7.9)
공예	50 (18.6)	31 (12.3)
디자인	65 (24.2)	42 (16.6)
만화·애니메이션	47 (17.5)	34 (13.4)
국악	14 (5.2)	0 (0.0)
독서 방법	24 (8.9)	3 (1.2)
글쓰기	40 (14.9)	4 (1.6)
기타	16 (5.9)	4 (1.6)
② 신체단련 영역		
해양종목(수영, 스쿠버 등)	88 (32.7)	41 (16.2)
구기종목(농구, 축구 등)	56 (20.8)	51 (20.2)
무술종목(태권도, 검도 등)	70 (26.0)	30 (11.9)
기타	18 (6.7)	2 (0.8)
③ 봉사활동 영역		
일손 돕기	60 (22.3)	9 (3.6)
위문활동	44 (16.4)	2 (0.8)
기타	14 (5.2)	0 (0.0)
④ 과학정보 영역		
우주·천체탐구	18 (6.7)	3 (1.2)
컴퓨터, IT	68 (25.3)	52 (20.6)
모형, 로봇	29 (10.8)	7 (2.8)
기타	11 (4.1)	0 (0.0)
⑤ 환경보존 영역		
생태·환경탐사	27 (19.0)	4 (1.6)
숲, 갯벌 체험	48 (17.8)	5 (2.0)
환경·시설보존	19 (7.1)	0 (0.0)
기타	9 (3.3)	1 (0.4)

학교 밖 청소년 자기계발 프로그램 운영모형 개발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통해 얻고 싶은 점	학교 밖 청소년(n=281)	실무자(n=295)
	빈도 (%)	빈도 (%)
자기계발에 유익한 정보	105 (37.4)	105 (35.6)
이론 지식	43 (15.3)	6 (2.0)
기술 습득	136 (48.4)	0 (0.0)
수료증	21 (7.5)	24 (8.1)
자격증 취득	159 (56.6)	210 (71.2)
현장체험	77 (27.4)	166 (56.3)
결과성과물(수료 작품 등) 소장	30 (10.7)	34 (11.5)
전시회나 발표회 참여	10 (3.6)	17 (5.8)
전문가 만남 기회	68 (24.2)	79 (26.8)
동아리 활동 참여	34 (12.1)	47 (15.9)
인턴이나 실습 경험	85 (30.2)	144 (48.8)
기타	1 (0.4)	6 (2.0)

적당한 프로그램 구조	학교 밖 청소년(n=292)	실무자(n=284)	
	빈도 (%)	빈도 (%)	
프로그램 기간	1주	25 (8.6)	11 (3.9)
	1개월	59 (20.2)	41 (14.4)
	2개월	42 (14.4)	62 (21.8)
	3개월	105 (36.0)	137 (48.2)
	4개월	16 (5.5)	7 (2.5)
	5개월	45 (15.4)	26 (9.2)
프로그램 횟수	1회	15 (5.1)	8 (2.8)
	2~5회	92 (31.4)	71 (24.9)
	6~10회	81 (27.6)	119 (41.8)
	11~15회	50 (17.1)	67 (23.5)
	16~20회	55 (18.8)	20 (7.0)
일일 프로그램 시간	1시간	37 (12.7)	21 (7.4)
	2시간	133 (45.5)	216 (76.1)
	3시간	83 (28.4)	38 (13.4)
	4시간	23 (7.9)	9 (3.2)

기타 학교 밖 청소년과 실무자 대상 자기계발 프로그램의 참여 목표, 참여 결정요인에 관한 응답결과와 실무자 대상의 운영절차, 매뉴얼수록 희망 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의 표 5와 같은 요구도출 및 요구반영을 하였다.

<표 5> 학교 밖 청소년 및 실무자 요구반영

구분	요구 도출	요구 반영
자기계발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희망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 : 악기, 보컬, 댄스·무용, 사진, 디자인, 애니메이션, 영상·음악편집 순 - 신체단련 : 농구·축구 등 구기종목, 수영·스쿠버 등 해양종목, 태권도·검도 등 투기종목 순 - 과학정보 : 컴퓨터·IT - 봉사활동 : 일손돕기 - 환경보존 : 숲·갯벌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계발 분야에 문화·예술, 신체 단련, 과학정보, 봉사활동, 환경 보존활동 반영
사전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연령대의 프로그램 참여목표 반영 • 준비단계에서 수요조사, 참가자 면담 및 프로그램 소개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비단계에서 수요조사 및 기획단계에서 청소년 참여 • 준비단계에 수요조사, 참가자 사정 및 프로그램 안내 포함
참여도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 경험, 또래관계 형성, 흥미로운 진행 등 흥미요소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 및 실습 기회제공, 또래 멤버십, 흥미로운 진행
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와의 연관성 • 진로적성에 도움 • 현장체험, 인턴, 실습 경험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에 유용한 성취물(자격증 등) • 관심 진로분야의 자격증, 현장체험 기회 제공 • 현장체험 및 실습 포함, 사후단계에서 인턴십 연결 추진
장애요소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참여 장애요소(비용부담, 정보부족 등)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프로그램 정보제공, 무료참가 비용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당한 운영시간 : 매주 1~2회, 하루 2~3시간, 1~3개월 내외, 전체 5~20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간 구성 시 고려

나. 학교 밖 청소년 심층면접 분석결과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심층면접 결과 자기계발 관심분야는 운동, 그림, 봉사, 직업체험 등으로 나타났으며, 참가비 부담이 없고,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며, 중도탈락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프로그램 흥미, 그리고 잠재력 개발 등의 성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모형에 반영한 결과는 다음의 표 6과 같다.

<표 6> 학교 밖 청소년 심층면접 요구반영

구분	요구 도출	요구 반영
관심분야	• 관심분야로 운동, 그림, 봉사, 직업 체험 등을 희망	• 자기계발 분야에 스포츠, 예술, 봉사활동 포함 (단, 직업체험은 두드림 프로그램에서 대체 가능)
참가비	• 부담 없는 참가비	• 참가비 무료화
보상체계	• 적절한 보상체계 필요	• 자격증, 수료증, 표창 등 인센티브 마련
참여도제고	• 참여 독려 등의 지속적 관심	• 참여자 애로사항 청취 및 만족도 평가를 위한 간담회 마련, 출석독려 등의 운영관리 요소 포함
흥미유발	• 흥미로운 진행방식, 친밀한 또래 관계 형성	• 이론보다는 체험 실습 중심의 진행, 친밀한 또래 관계 멤버십 포함
성과	• 잠재력 개발, 성취감, 삶의 목표, 자신감을 갖기를 바람	• 운영모형의 성과 부분에 반영

다. 실무자 초점집단면접 결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실무자 대상 초점집단면접(FGI) 결과 자기계발 프로그램의 성과로 성취감과 목표의식을 강조하였으며, 지역특성에 따라 자율적 운영이 필요하며, 운영관리 측면에서 실무자의 관심, 강사의 역량, 멘토의 활용이 중요하며,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사후단계에서 동아리 활동을 제안하였으며, 참여도 제고를 위한 운영Tip이 제시되기를 기대하였다. 이러한 요구들을 운영모형에 반영한 결과는 다음의 표 7과 같다.

<표 7> 실무자 FGI 요구반영

구분	요구 도출	요구 반영
성과	• 성취감, 목표의식을 갖도록 구성	• 운영모형의 성과 부분에 반영
지역특성	• 모형을 제시하되 지역상황에 따라 센터별 자율적 운영	• 표준 모형을 참고하되 센터별 자율운영 가능한 구성원리 적용
운영관리	• 지속적인 실무자 관심 필요	• 운영관리 측면에 모니터링 및 출결관리 등 포함
	• 강사의 프로그램 진행능력 중요	• 운영관리 측면에 주기적인 강사 면담을 통한 피드백 제공 포함
	• 필요시 멘토단 운영	• 필요시 개별 멘토링 반영
사후단계	• 사후단계에서 또래지지 모임 필요	• 사후단계에 동아리활동 지원 포함
운영Tip	• 청소년 참여유도 노하우 제시	• 모형 세부안에 운영 Tip 포함

라. 전문가 자문 결과

자기계발 프로그램 운영모형에 관한 전문가의 자문 결과, 준비단계에서 신청접수시 프로그램 소개가 필요하며 위탁기관이나 강사 섭외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사전교육이 필요하며, 참여자의 객관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심리검사를 제안하였으며,

실행단계에서는 현장학습시 우천대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모형은 운영기간에 따라 장기형, 단기형, 운영주체에 따라 센터중심, 위탁기관 중심, 참여자의 발달특성을 고려한 유형을 구분하고, 자기계발 영역별 운영모형 예시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자문 결과를 운영모형에 반영한 결과는 다음의 표 8과 같다.

<표 8> 전문가 자문 요구반영

구분	요구 도출	요구 반영
준비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비단계에서 신청접수시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 설명 필요 • 기관(강사) 연계시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을 충분히 공유 • 심리검사 등을 통해 참여자의 객관적 성향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비단계에 프로그램 소개 포함 • 준비단계에 연계기관(강사) 대상 사전교육 반영 • 준비단계에 심리검사 반영
실행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외활동시 우천시 대비책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행단계에 현장학습시 우천 대비책 마련 포함
모형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 기간에 따라 장기형, 단기형 구분 필요 • 운영주체에 따라 센터중심, 위탁기관 중심 구분 필요 • 학교 밖 청소년의 발달특성 고려 • 자기계발 영역별 운영모형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형, 장기형 모형 구분 적용 • 센터형, 위탁형 구분 적용 • 참여자의 특성별 혼란기, 모색기, 도약기로 구분 적용 • 영역별(문화·예술, 신체단련, 봉사활동, 환경보존) 운영모형 제시

마. 시범운영 결과

2개소 지역센터에서 자기계발 프로그램 운영모형에 따라 실시한 신체단련 프로그램(A센터), 문화·예술 프로그램(B센터)에 대한 양적평가 결과, 다음의 표 9와 같이 자기효능감은 B센터에서, 진로성숙도는 A센터에서 각각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5점 만점)는 A센터 4.52점, B센터 4.02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9> 시범운영 사전/사후 평가

평가내용	센터 (자기계발 영역)	사전	사후	Z값
		M(SD)	M(SD)	
자기효능감	A (신체단련 영역)	3.02(.68)	3.22(.55)	-1.54
	B (문화·예술 영역)	2.81(.61)	2.94(.58)	-2.23*
진로성숙도	A (신체단련 영역)	3.66(.32)	3.89(.36)	-2.11*
	B (문화·예술 영역)	3.52(.66)	3.42(.69)	-.84

* $p < .05$

시범운영에 대한 활동점검일지, 현장방문 관찰, 사후 평가회의 등을 통한 질적평가 결과는 다음의 표 10과 같이 기획단계에서 청소년의 참여가 중요하며, 이론보다는 현장체험이나 실습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특성별 자율적인 운영, 멘토 활용 등의 운영방식을 제안하여 이를 운영모형에 반영하였다.

<표 10> 시범운영 요구반영

구분	요구 도출	요구 반영
준비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의 관심과 욕구 반영 • 이론보다 실습위주의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단계에 청소년 참여 • 현장체험, 실습 포함
운영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특성별 효율적 운영 • 자원봉사자, 재능기부자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을 제시하되 자율적 운영 가능 • 멘토링 개념 반영

2. 프로그램 운영모형 개발

가. 운영모형의 구성원리

이상의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자기계발 프로그램 운영모형의 7가지 구성원리를 제시하였다. 첫째, 자기계발 영역은 문화·예술, 신체단련, 과학정보, 봉사활동, 환경보존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의 잠재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으로 한다. 둘째, 운영모형은 프로그램 소요시간과 프로그램 주관 기관을 고려하여 단기 센터형, 단기 위탁형, 장기 센터형, 장기 위탁형의 4가지 모형으로 구분한다. 이때 단기는 30시간 이상 60시간 미만으로 하며, 장기는 60시간 이상으로 한다. 프로그램 주관 기관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중심일 경우 센터중심형, 외부 위탁기관 중심일 경우 위탁중심으로 구분한다. 셋째, 운영모형의 구성은 논리모델에 근거하여 투입, 전환, 산출, 성과의 4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 넷째, 운영모형의 단계는 준비단계, 실행단계, 사후단계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준비단계에서는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며, 실행단계에서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사후단계에서는 프로그램 종료 후 추가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 다섯째, 운영모형은 다양한 자기계발 영역의 프로그램 운영절차와 방법을 표준화한 것으로서 프로그램 운영시 표준모형을 참고하되 선택한 주제에 맞게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여섯째, 자기계발 프로그램의 평가는 가급적 사전·사후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거나 사후 성과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요소를 지역별 자율적으로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운영모형 매뉴얼에는 표준모형에 따라 지역별 자기계발 프로그램 적용 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 적용 예시를 포함한다. 또한 운영노하우, 유의사항,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 등을 담은 Tip을 제공하여 현장에서 초보 실무자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운영모형의 단계별 구성요소

단계별 구성요소는 다음의 그림 5와 같이, 자기계발 프로그램에 요구되는 자원이 무엇인가에 관련된 '투입', 바람직한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전략에 해당하는 '전환', 프로그램 실행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물에 해당하는 '산출',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표에 관련된 '성과'로 이루어진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입요소는 프로그램 운영에 요구되는 인적·물적·환경적 자원으로서 인력, 예산, 장소, 참여자 수요, 지역자원 등이 있다. 특히 참여자의 목표와 욕구수준에 따라 자기계발 프로그램의 방향과 내용이 좌우되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본 모형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상황과 특성에 따라 이들을 혼란기, 모색기, 도약기로 구분하였다. 혼란기는 뚜렷한 목표가 없이 방황하는 시기로서 이 단계의 청소년들은 본격적인 자기계발 프로그램 참여에 앞서 학교 밖 생활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심리상담 프로그램이나 단회성 체험 프로그램 참여가 필요하다. 모색기는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탐색하는 시기를 거쳐 자신의 잠재력 계발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시기로 본 모형의 단기형 프로그램 참여 대상으로 적합하다. 도약기는 김영희와 최보영(2015)의 연구에서 발견된 것처럼, 미래에 대한 확실한 기대를 갖고 도전하는 의욕적인 자세를 갖고 자기계발을 위해 한 차원 높은 전략을 수행하는 시기로 본 모형의 장기형 프로그램 참여 대상으로 적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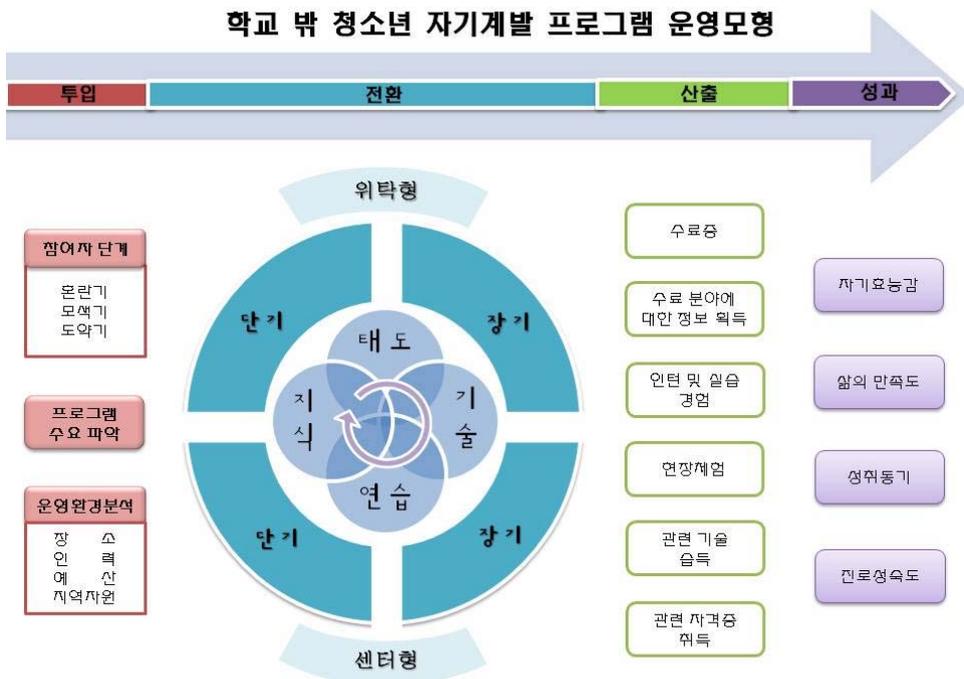
둘째, 전환요소는 프로그램 운영주체, 운영기간, 프로그램 지도원리가 포함된다. 프로그램 운영주체는 센터의 실무자가 프로그램 운영 전체를 담당하는 '센터형'과 해당 자기계발 영역에 대해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기관에 운영을 위탁하는 '위탁형'으로 구분된다. 센터형은 센터 실무자가 사전준비부터 사후단계까지 담당하며, 프로그램 회기진행에 있어서는 실무자 본인이 할 수도 있으며, 외부 전문 강사를 섭외하여 운영할 수 있다. 반면 위탁형은 센터에서 해당 영역의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을 섭외하여 그 기관에 프로그램 운영전반에 필요한 총 예산을 지급하거나, 섭외된 기관에서 해당 기관의 예산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2가지의 형태가 가능하다. 운영기간은 청소년 및 실무자 대상 요구조사와 선행 프로그램 수집분석에 기초하여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였다. 단기 프로그램은 30시간 이상 60시간 미만, 장기 프로그램은 60시간 이상이다. 가령 30시간의 단기 프로그램인 경우, 주 1회, 2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3~4개월 동안 총 15회를 진행하는 방식이 선호된다. 본 운영모형에 제시한 자기계발 지도원리는 최염순(2005)의 자기계발 사이클을 적용하였다. 자기계발의 지도원리는 자기계발의 필요성을 느끼고 변화를 원하는 태도 형성 단계, 기본적인 개념 및 원리와 원칙을 습득하는 지식 습득 단계, 습득된 지식에 대해 연습하고 활용하는 반복적인 연습 단계, 지속적인 연습을 통한 성공경험으로 새로운 기술을 획득하게 되는 기술(습관화) 단계의 4가지 사이클로 순환하며 진행된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자기계발 프로그램은 이러한 자기계발 사이클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기획하여 참여자들이 이러한

학교 밖 청소년 자기계발 프로그램 운영모형 개발

자기계발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셋째, 산출요소는 수료증, 자격증 취득, 관련 기술습득, 현장체험, 인턴 및 실습경험, 수료 분야의 정보획득이 해당된다. 이 중 자격증 취득은 프로그램 수료 시점이 아닌 일정기간 후에 시험일정과 준비과정을 거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획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산출 결과물을 제시하여 청소년들의 프로그램 참여 동기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넷째, 성과요소는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에게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로서 성취감, 자기효능감(김미란, 2012), 삶의 만족도(김혜영, 이동귀, 2009), 진로성숙도가 해당된다. 이러한 요소들은 본 연구의 실증조사와 선행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제시하였다. 조사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들은 자기계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자기 적성을 파악하고 진로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으며 이를 통해 자신감과 성취감을 얻고자 하였다. 따라서 자기계발 프로그램 기획시 성과 목표를 고려하여 프로그램 내용이 설계될 필요가 있으며 타당화된 척도를 통해 프로그램 참가 전후의 변화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5] 학교 밖 청소년 자기계발 프로그램 운영모형

다. 자기계발 프로그램 운영절차

운영절차는 다음의 표 11과 같이 준비단계, 실행단계, 사후단계로 구성하였다. 준비단계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 단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에서부터 프로그램 실행 직전 사전교육까지 해당된다. 이 단계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계획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이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강사를 누구로 할 것인지, 예산을 얼마나 사용할 것인지, 참가자를 어떻게 모집할 것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준비하게 된다. 준비단계에서는 실행을 위한 준비이므로 본 단계에서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서 점검하지 않으면 실행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하겠다. 또한 참여 청소년에 대한 사전 정보를 파악함은 물론 사전교육 시 강사에게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을 전달하여 추후 이루어질 실행과정에서 청소년과 강사 간에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실행단계는 프로그램을 실제로 운영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개강식에서부터 시작하여 여러 회기를 반복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 가운데 특강 및 현장학습 등의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최종발표회 및 수료식으로 마치게 된다. 프로그램의 실행단계에서는 참여자들이 흥미를 갖고 계속적으로 참여(출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내용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하며, 강사 역시 청소년들과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실무자는 참여 청소년들이 강의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출석은 잘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수시로 점검해야 하며, 필요시 전화 및 대면을 통해서 참여 청소년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회기의 종료 시점에 그동안의 내용을 종합하여 발표하거나 전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 참여 청소년들 외에 외부에서 가족 및 친구들이 함께 할 수 있으므로 기본적인 회기 준비 외에 추가적인 준비가 필요함을 미리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사후단계는 프로그램의 모든 회기를 마치고 참여 청소년의 선택에 따라서 참여하게 되는 사후활동이다. 이 단계는 실행단계와는 달리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추후 모임에 대해 희망하거나 프로그램 연장선상에서의 추가적인 교육, 정보, 자격시험 등으로의 요구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므로 센터 및 참여 청소년의 상황에 따라 실행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보통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종료될 경우, 참여 청소년들이 사후활동을 요구하게 되며, 이를 동아리활동으로 연계하여 활동을 지속할 수 있고, 해당 프로그램의 후속과정으로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따라서 상황에 맞게 사후단계를 진행하고, 프로그램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청소년의 요구에 따라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 밖 청소년 자기계발 프로그램 운영모형 개발

<표 11> 자기계발 프로그램 운영구조

단계	과정	세부내용	준비사항	시간		
준비 단계	1	기본계획 수립	• 기초정보수집(인터넷, 홍보물 등) • 예산 검토 및 기본계획서 작성	기본계획안 (예산서 포함)	8주전	
	2	수요조사	• 참여대상 수요조사 (양케이트, SNS 등) • 수요조사 결과분석 및 콘텐츠 결정	수요조사 설문지 분석결과물	7주전	
	3	기관(강사) 연계 결정	• 연계가능기관(강사) 정보수집 • 연계 협의 및 문서교환	연계기관 리스트 제안서, 공문	6주전	
	4	세부 프로그램 구성	• 세부안 협의(목표, 내용, 방법 등) ※ 청소년 의견 반영 필수	프로그램 계획서 (일정표, 예산) 연계기관 소개자료	5주전	
	5	참가자 모집	• 참가자 모집 안내 및 신청접수	안내문 및 신청서	4주전	
	6	참가자 확정	• 신청자 면접, 확정 통보 • OT 참석 안내	면접지, OT안내문	2주전	
	7	참가자 사정	• 심리검사 • 프로그램 관련 사항 파악	사정기록지, 심리검사지	1.5주전	
	8	최종점검/ 사전교육	• 강사, 센터 담당자 사전교육 • 센터, 강사 간 역할분담 • 최종 준비상태 점검	사전교육자료, 참가자 리포트, 역할분담표, 점검목록	1주전	
실행 단계	초기	1	개강식 (OT)	• 강사 및 참여자 소개 • 프로그램 소개 • 워밍업활동, 계약서 작성 • 효과성 평가(사전)	소개자료, 계약서, 효과성 평가지(사전)	120분
		도입	• 출석체크, 라포형성 놀이 • 유의사항, 안전교육 • 지난회기 복습, 이번회기 소개	출석부, 교육자료		
	반 복 회 기	2	이론 교육	• 기초지식 전달 • 도구 사용법	이론교재, 시청각 교구	120분 × 8회
		실기 교육	• 수준별(초, 중, 고급) 실습	실습도구(악기 등)		
	중 기	마무리	• 모범 참여자 시상 • 소감 나누기	강화물(간식, 상품)		
		3	특강	• 외부 전문가 초청 특강	외부 전문가 섭외	120분
	특 별 회 기	4	현장 학습	• 공연(경기) 관람, 출사 등 • 전문가 현장 인터뷰 • 현장 스텝 체험	현장답사, 안전보험, 전문가 섭외	120분
		5	중간 점검	• 자체 중간 발표회	중간 발표물	120분

단계	과정	세부내용	준비사항	시간
말기	6	발표회 리허설 • 현장 리허설 (공연, 전시, 대회 등)	리허설 장소 섭외	120분
	7	수료식 (평가) • 수료증 수여, 우수자 시상 • 만족도, 효과성 평가(사후) • 수료 뒷풀이 다과회	수료증, 만족도, 효과성 평가지(사후), 개별 목표달성 체크리스트 등	120분
	8	최종 발표회 • 최종발표회 (전시회, 음악회, 공연 등)	최종발표물, 보상물 (상장, 상품 등), 시설 대관	120분
운영 관리	9	참여자 간담회 • 주기적 현장 피드백 청취 • 참여 지속 동기부여	피드백 내용	필요시
	10	강사 면담 • 주기적 강사 피드백 • 개선 논의	피드백 내용	필요시
	11	출결 관리 • 참가물 점검 • 결석자 모니터링(면담, SNS 등) ※ 필요시 개별 멘토링		매회
사후 단계	1	동아리 활동 • 자체 동아리 활동 연결 • 주기적인 동아리 지도 • 지역 재능기부 참여	동아리 지도자 섭외, 장소 제공, 재능기부 활동 섭외	매월
	2	자격시험 • 자격시험 정보제공 • 필기 및 실기 준비 지원 • 시험당일 현장 동행	자격시험 정보, 응시료	필요시
	3	도제교육 • 직업준비 과정 희망시 개별 숙련교 육 연결	도제교육 기관(전문가) 섭외	필요시
	4	정보제공 • 관련 분야 지속 정보 제공	정보 자료	수시
	5	프로그램 결과 공유 • 프로그램 운영 사례집 발간 (활동사진, 자격취득 성과) • 언론보도, 자체 행사 발표	대외 홍보, 보도자료, 발표자료	연말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의 자기계발 프로그램 운영모형을 개발하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표준화된 운영모형을 제시하되 현장상황에 맞게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안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운영모형의 구성요소는 투입, 전환, 산출, 성과로 이루어진다. 투입요소는 프로그램 운영에 요구되는 인적·물적·환경적 자원으로서 인력, 예산, 장소, 참여자 수요, 지역자원 등이 있다.

특히 참여자인 학교 밖 청소년은 상황과 특성에 따라 혼란기, 모색기, 도약기로 구분되는데 혼란기는 자기계발 프로그램 참여 이전에 사회적응을 도울 수 있는 심리상담이나 단기 체험 프로그램 참여가 우선시되며, 모색기는 단기형, 도약기는 장기형 프로그램 참여 대상에 각각 적합하다. 전환요소는 운영주체, 운영기간, 프로그램 지도원리가 해당된다. 운영주체는 센터 중심의 센터형, 외부 위탁기관 중심의 위탁형으로 나뉘지며, 운영기간은 30~60시간 사이의 단기형, 60시간 이상의 장기형으로 구분된다. 지도원리는 태도형성, 지식습득, 연습, 기술연마의 4가지 사이클로 순환된다. 이 과정에서 제공되는 자기계발 프로그램 분야는 문화·예술, 신체단련, 과학정보, 봉사활동, 환경보존 분야가 해당된다. 산출요소는 수료증, 자격증 취득, 관련 기술습득, 현장체험, 인턴 및 실습경험, 정보획득이 포함된다. 성과요소는 성취감, 자기효능감, 삶의 만족도, 진로성숙도가 해당된다. 둘째, 운영절차는 준비단계, 실행단계, 사후단계로 이루어진다. 준비단계는 기본계획 수립, 수요조사, 기관(강사) 연계 결정, 세부 프로그램 구성, 참가자 모집 및 확정, 사정, 최종점검 및 사전교육의 순으로 진행된다. 실행단계는 초기의 오리엔테이션, 중기의 도입, 이론 및 실습, 특강, 현장학습, 중간점검, 말기의 발표회 리허설, 수료식, 최종 발표회로 진행되며, 운영관리를 위해 참여자 간담회, 강사면담, 출결 관리가 이루어진다. 사후단계는 동아리 활동, 자격시험, 도제교육, 정보제공, 프로그램 결과 공유가 선택적으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의 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과 직업 진로 외에 제 3의 진로트랙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계발을 지원하고자 프로그램 운영모형을 새롭게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업이나 직업을 준비하는 일 외에도 일상에서의 관심이나 취미와 관련한 활동을 원하기도 하고, 자신의 추후 진로 및 방향을 정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여러 경험을 통해 이를 찾고자 하는 욕구가 있지만 기존의 지원 프로그램들은 이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는 데 일정부분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연구 및 사업영역의 한계를 넘어 자기계발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다양한 관심과 욕구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자기계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현장성과 유용성을 갖춘 모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운영모형은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실무자들에게 자기계발 프로그램 기획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함은 물론 실제적인 운영방법 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 현장 실무자, 학계 전문가 대상의 양적·질적조사를 실시하였고, 시범운영을 통해 효과성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자기계발 프로그램 계획 단계에서 청소년의 욕구 반영, 체험·실습위주의 프로그램 강화, 자기계발 영역에 따른 운영방식의 차별화 등 여러 가지 실천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으며 이를 적극 반영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특히, 2015년 처음 전국에 설치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경우 실무자들이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를 충분히 갖추지 못해 자기계발에 대한 인식과

지원 프로그램 운영방법에 대한 의문이 많았기에 본 운영모형과 함께 제시한 자기계발 영역별 프로그램의 예시, 각종 양식, 유의사항, 예산 정보 등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논리모델에 근거해 제시한 운영모형은 투입 대비 산출(효율성), 투입 대비 성과(효과성) 등을 평가하여 프로그램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에 유용하다. 논리모델은 프로그램의 과정과 성과를 간결하게 표현하고 프로그램 관계자들의 논의를 촉진 해주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에 다수 활용되고 있다(Cooksy et al., 2001; Julian et al., 1995; Savas et al., 1998; Solomon, 2002; 김지혜, 2004에서 재인용). 박명신과 임선희(2013)는 교육복지 대상 중학생 학습멘토링 프로그램 효과분석 연구에서, 김지혜, 정경은, 박지영, 김기남과 조규필(2007)은 일시청소년쉼터 서비스 운영모형 개발에서, 이익섭, 김경미와 윤재영(2007)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시범사업의 성과 평가에서 논리모델을 적용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본 모형은 정부예산이 투입되어 전국적으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운영되는 자기계발 프로그램의 성과관리 측정 및 효과성 증진을 위해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를 시작으로 이후 학교 밖 청소년 자기계발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계발 영역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의 자기계발 프로그램 운영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모형을 표준화한 연구로서 의미가 있지만, 문화·예술, 신체단련 등 매우 다양한 자기계발 영역의 차별적인 특성을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자기계발 영역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모형 개발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둘째, 자기계발 프로그램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정서적·행동적·인지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목표와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목표의 부재 속에서 생활하는 경험을 하지만, 자기계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서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고, 목표가 생기는 등 변화의 체험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자기계발 프로그램 기획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태도·지식·기능의 성장과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활동이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프로그램 종료 후 사후단계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 가운데 상당수가 당분간은 학업과 직업 진로의 준비보다는 자신의 잠재력을 키우고 개인적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자기계발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였다. 하지만 연구결과, 자기계발 프로그램 참여가 자연스럽게 진로목표 성취동기를 자극하여 진로개발에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사후단계에서는 자격증 취득, 인턴십 연계 등 실질적인 진로 준비를 지원할 수 있는 후속 프로그램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자기계발 프로그램의 운영모형은 지역적(혹은 센터별) 특성에 맞게 구성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운영모형은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표본을 제시하고 있지만, 현장조사 결과 지역 센터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므로 적용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기 때문에 향후 지역 특성이 반영된 모형으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추후 연구

에서는 각 지역(혹은 센터)에서 실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지역별 특성화된 운영모형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지속적인 자기계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장기형 운영모형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운영모형은 기간 및 프로그램 내용의 난이도를 조절하여 장·단기형 모두 사용가능하지만 주로 단기형에 맞춰져 있다. 장기형은 단기형과는 다른 해당 청소년의 특성, 운영시간 및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므로 별도의 운영모형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도약기 단계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관심분야의 자기계발에 좀 더 깊이 있게 참여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지원하기 위해서는 장기형 운영모형 개발을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의 자기계발 프로그램 운영모형을 처음으로 표준화하여 제시하였다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자기계발 관련 프로그램 수집 시 일부 기관들에서 프로그램의 세부 공개를 꺼려하는 관계로 풍부한 자료를 분석하여 담지 못한 점, 지역별 매우 다양한 자기계발 프로그램 운영과정을 표준화된 모형으로 제시함으로써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 운영모형의 시범운영 시 현실적 여건상 네 가지 영역을 모두 포함시키지 못한 점 등은 본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향후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광석 (2015). 현안과 과제: 청년 니트족(NEET) 특징과 시사점. 서울: 현대경제연구원.
- 김미란 (2012). 청소년 이행(transition)과 '위기청소년'담론에 대한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22(1), 51-76.
- 김미숙 (2009). 일본의 니트(NEET) 현황과 자립지원정책에 관한 고찰. 청소년복지연구, 11(4), 173-199.
- 김영중, 권순애 (2003). 논리모델(Logic Model): 사회복지 프로그램 기획에의 적용가능성. 사회과학연구, 19, 209-226.
- 김영희, 최보영 (2015). 학업중단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정. 한국청소년연구, 26(2), 141-175.
- 김지혜 (2004). 논리모델을 이용한 프로그램 이론 구축: 브릿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18, 7-32.
- 김지혜, 정경은, 박지영, 김기남, 조규필 (2007). 일시청소년쉼터 서비스 운영모형 개발. 청소년학연구, 14(2), 245-268.
- 김창대 (2002). 청소년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 청소년상담사 연수교재.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김혜영, 이동귀 (2009). 직장인의 자기계발 동기와 심리적 안정감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2(2), 261-293.
- 류은수 (2014). 웹기반 문제중심학습(e-PBL) 교수설계와 효과 분석. 인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명신, 임선희 (2013). 교육복지대상 중학생을 위한 학습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5(2), 197-225.
- 박현선 (2003). 청소년의 학업중퇴 적응과정에 대한 현실기반이론적 접근. 한국사회복지학, 53(5), 75-104.
- 변창진 (1994). 프로그램 개발. 서울: 홍익출판사.
- 신수경 (2013). 성인학습자들의 자기계발 학습 참여 과정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서구, 김웅수, 김윤나, 서보람, 강현우 (2012). 가출패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발굴 결과보고서. 서울: 여성가족부.
- 윤철경, 류방란, 김선아 (2010). 학업중단현황 심층 분석 및 맞춤형 대책 연구.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철경, 유성렬, 김신영, 임지연 (2013). 학업중단 청소년패널조사 및 지원방안연구 I.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봉주, 김예성, 임정임 (2009).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평가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0(2), 257-281.
- 이석민 (2011). 프로그램 논리모형(Logic Models)의 적용과 사용에 관한 연구: 간접흡연제로! 서울 평가지표 개발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8(1), 211-242.
- 이익섭, 김경미, 윤재영 (2007). 한국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시범사업 평가와 향후과제. 한국사회복지학, 59(2), 197-222.
- 이정원 (2015). 군에서의 자기계발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3(1), 11-23.
- 임영식, 문성호, 정경은 (2011). 2011 인증수련활동 효과성 측정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임영식, 정경은, 진은설 (2014). (주)두산 청소년 정서지원사업의 효과성 연구-시간여행자 지원 프로그램. 서울: ARCON.
- 조규필 (2014). 학교 밖 청소년 실태 및 특성, 정책 및 제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 전문강사 양성교육 자료집. 부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최염순 (2005). 카네기인간경영리더십. 서울: 씨앗을 뿌리는 사람.
- 최익용 (2010). 대한민국 리더십을 말한다. 서울: 이상biz.

- 최인재, 이경상, 김정숙, 장근영 (2015). 2015 학교 밖 청소년 실태 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황순길, 조규필, 박현진, 김범구, 황수진, 신정란 외 (2013). 취약청소년 자립 및 학업지원 통합 모형 개발. 서울: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Beaulac (2008). *A promising community-based hip-hop dance intervention for the promotion of psychosocial and physical*.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Ottawa.
- John Eddie Maxwell. (1980). *A study in self-concept in sports of economically disadvantaged children in the national youth sports program at California State University at Sacramento*. Connecticut: University Microfilms International.
- Tam, Kai Yung (Brian), Rousseau, Marilyn K. Nassivera, John W. Vreeland, Peter (2001). Holiday in the Museum: An alternative program for at-risk high school students. *Intervention in School and Clinic*, 37, 77-85.

The Development of a Management Model for a Self-development Programs for Youth out of School

Gyupil Cho Sujin Kim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pose a management model for self-development programs that can help youth out of school develop their potential and talent. First, previous research was analyzed based on literature review and self-development-related programs, and relevant implications were found. Second, a survey was conducted with 294 youth out of school and 298 field practitioners in 17 cities across the country. Third, we interviewed 10 youth out of school and did FGI(focus group interview) with 10 field practitioners in order to identify the needs of youth out of school and relevant institutions. Fourth, based on the analysis, the principle and components of the program management model were identified, and then, a management model(draft) for self-development programs was designed and reviewed for validation by experts. Fifth, the model(draft) was applied to two Out-of school Youth Support Center and its effect was verified. Finally, we proposed the practical, field-oriented management model used main concepts of the logic model.

Key words: youth out of school, self-development, the management models for programs, the development of the management model